



우송대가 '엔디컷국제대학' 개원 선포식을 열고 있다.

우송대 제공

우송대학교 4차 산업혁명 선점 정조준... 학생 경쟁력 강화



변화에 능동적 대응... 학제 개편 마쳐
세계적인 석학들 해외자문위원 위촉
세계국제관계대학연합 가입에 매진

우송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승부수를 걸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대학을 목표로 '엔디컷국제대학'을 개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소프트파워 인재를 키워내기로 했다. 엔디컷국제대학은 우송대가 운영하는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AACSB 인증, 프랑스 명문 요리 학교 폴 보퀴즈 월드엘라이언스 멤버 선정 등 국제화에 공헌한 존 엔디컷 총장의 교육이념을 연계했다. 당장 직면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학생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대학 스스로 혁신적 커리큘럼으로 학과를 개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우송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엔디컷국제대학'에 대해 알아본다.

◆4차 산업혁명, 우송대의 변혁

우송대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식과 혁신기술, 정보가 어우러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지식이 IT

기술과 창의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성패가 갈린다. 국제화 중심 대학인 우송대는 이미 변혁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걸맞는 학제 개편 등을 끝낸 상태다. 특히 국제화 역량 강화차원에서 2007년 존 엔디컷 총장을 초빙하면서 글로벌·특성화 교육과정으로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글로벌 명문 대학을 목표로 씌없이 달려왔다. 2007년 설립된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은 학생들이 유학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40여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과 생활하는 다문화 교육환경, 해외 명문대 출신의 교수진, 100% 영어 강의, 토론회 선진 커리큘럼, 해외 우수 대학과 복수학위제 운영 등 혁신적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2014년엔 세계 상위 5% 우수 대학만 보유한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인증을 세계 최단기간 획득했다. 지난해엔 AACSB '올해의 혁신프로그램상(Innovations that Inspire)'을 수상하는 영예로 아시아 최고 국제경영대학으로 인정받았다.

우송대는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성공적 도약으로 2015년 조리·호텔·철도·의료서비스경영·비즈니스·미디어 영상·글로벌외식창업 특성화 분야 등 다각적 글로벌화를 모색했다. 그 결과 성공적 해외취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100% 영어강의로 이뤄진 '솔 인터네

■엔디컷국제대학 학과 구성		
학부명	학업 내용	세부 학과명
매니지먼트학부	글로벌마인드와 혁신마인드를 갖춘 비즈니스인력 양성을 위한 3개 학과로 구성	국제경영학과 금융세무경영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기술과학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을 운영하고 디자인하는 인력을 양성	테크놀로지디자인학과 기술경영학과
국제학부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는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 구성	글로벌복수학위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 기술, 지역이라는 세가지 전공영역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력 양성	엔디컷자유전공학과 아너스자율전공

셔널 스쿨(SIS·Sol International School)'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엔 한국 최초로 프랑스 대표외식조리대학인 폴 보퀴즈의 월드와이드 얼라이언스 멤버에 선정돼 국제화에 날개를 달았다. 이러한 성과로 우송대는 40여개국에서 온 유학생 1500명이 공부하는 명실상부 국제화 대학의 표상이 됐다.

◆세계적 석학들 찬사 속에 탄생한 엔디컷국제대학

지난 2일 열린 '엔디컷국제대학' 개원 선포식엔 특별한 손님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럽경영대학으로 불리는 '인시아드 경영대학(Institut Européen d'Administration des Affaires)' 학장을 역임한 세계적 석학이자 태국 출라롱콩대학 짜신 경영대학원장인 디팍 제인 박사(Dr. Dipak C. Jain)를 비롯한 7개국 11명의 해외 석학이 참석했다. 인시아드 경영대학은 1957년 설립돼 프랑스·싱가포르·UAE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지난해 파이낸셜 타임스

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디팍 제인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하얏트 인터내셔널, 닛산 등 세계 우수 기업의 자문위원을 지낸 혁신·마케팅 기업 컨설턴트로 엔디컷국제대학의 발전을 조언해줄 예정이다. 우송대는 이들 석학들을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엔디컷국제대학이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엔디컷국제대학은 이름만큼 강사진도 남다르게 구성했다. 교수진 절반은 외국인이며 영어강의 비중을 늘려 글로벌 소프트파워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이 짜여졌다. 4개 학과로 구성된 커리큘럼은 매니지먼트학부(Management studies), 기술과학부(Technology studies), 국제학부(International studies), 자유전공학부(Interdisciplinary studies) 등이다. 사물인터넷(IoT)·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

니스·혁신 마인드 교육을 강화한다. 또 인문·역사·사회과학·자연과학 등 교양과 기초학문 토대에 경영과 국제학·정보기술학을 집중 교육해 창의적 융합능력을 키운다는 셈법이다.

엔디컷국제대학은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과 국제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해외 명문대 교육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또 설립에 많은 도움을 준 디팍 제인 박사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국제화 체계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디팍 제인 박사는 "엔디컷국제대학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아시아 최고의 국제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학들은 3일 우송관에서 진행된 '4차 산업혁명:아시아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재양성 방안에 토론했다.

김흥기 엔디컷국제대학장은 "협업과 소통을 중시하고 혁신적·창의적 마인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에 우송대 전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엔디컷국제대학이 아시아 최고 국제대학을 목표로 한 만큼 세계 36개 대학으로 구성된 세계국제관계대학(원)연합(APSIA·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의 멤버로 최단기간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경영학 특성화 프로그램 수립땐 글로벌 경영대학 가속도"



디팍 제인 박사

엔디컷국제대학이 개원하면서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된 세계적 석학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국 출라롱 대학 사신경영대학원 학장인 디팍 제인(Dr. Dipak C. Jain)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시아드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하면서 우송대의 인재양성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디팍 제인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걸출한

기업들의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쌓은 노하우로 엔디컷대학에 애정어린 찬사를 보냈다.

그는 충청투데이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우송대가 특성화된 경영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글로벌 경영대학으로 안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명예박사 학위가 성장할 수 있는 우송대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송대는 글로벌 교육을 대학의 핵심 성

장지표로 삼고 있다. 세계적 석학이 바라보는 우송대의 역량을 말해준다면.

"우송대는 특성화된 경영학 프로그램이 뒷받침된다면 세계적인 글로벌 경영대학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경영학 석사, 건강관리학 석사 같은 프로그램 등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전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성화 석사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학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수준을 만든다. 우송대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인재 육성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oT(사물인터넷)와 클라우드 컴퓨팅, 즉 공유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연결의 시대(Age of connectivity)'다. 국가의 구분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인기는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때문이다.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산한다. 아이디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미국에, 또 다른 사람은 유럽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모두 인터넷이라는 공동체에 속해있고 아이디

어로 연결돼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공동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우송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소감을 말해달라.

"최근 90번째 생신을 맞은 아버지에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어릴때 장님이 됐는데 매우 기뻐할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영광이다. 성장하고 있는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매우 기쁘다. 엔디컷국제대학이나 우송대의 성장 가능성이 보였다. 우송대가 어떤 꿈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다. 항상 여러분과 우송대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